

자연주의 패션경향과 대나무 모티프의 패션디자인 연구

강 죽 형

동서울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자연주의 패션경향을 조형예술과 패션디자인 영역에서 살펴보고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자연물인 대나무를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을 제시한 것이다. 조형예술에 구현된 자연주의를 정리한 결과 역사적으로 자연주의 예술작품에는 작가가 친숙한 자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양적인 조형예술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양적인 자연물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현대 패션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디자인이 서구적인 조형시각에서 구성되어졌고, 자연주의 관점에서 보면 서구적인 디자인은 서구의 자연을 모티프로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패션디자인을 위해서 동양적인 자연물인 대나무를 모티프로 삼았다. 다음으로 대나무의 형태와 색채를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연구자의 8개의 작품을 제시했다. 이는 동양적인 자연물을 시각화하여 한국적인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조형의 방법적 틀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연구자의 패션디자인에 실험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 범세계적인 보편성 위에서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주제어: 자연주의, 대나무, 모티프,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¹⁾

인간이 창조한 모든 예술적 조형물은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모방이다. 이러한 사고는 고대 철학에서 현대 미학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명제이다. 자연주의는 자연물에서 창조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흐름을 의미한다. 한편 현대 과학문명으로 대별되는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방향을 작용하고, 이러한 경향은 순수자연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에콜로지(ecology)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주의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존재한다. 첫째, 창조의 원천으로서의 의미이다. 인간 창조의 아이디어는 낡은 요소의 결합이며, 낡은 요소를 배합하는 능력은 사물의 관련성을 볼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처럼 창조는 천재의 머릿속에서 탄생했다기보다는 이전의 낡은 것을 결합한 것이고, 그 근원을 추구하면 결국 자연물로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자연물은 어떠한 형태든 어떤 기능으로든 생존과 존속을 위해 독특한 자신만의 특성을 지니고, 인간은 이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창조의 모티프로 응용하게 된다. 둘째, 조형예술이나 패션디자인 경향으로서의 자연주의이다. “자연주의” 경향은 시대적으로 변화하여 왔고, 이러한 변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자연에 대한 철학관 내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자연주의의 경향을 어떻게 재조명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현대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 있어 서양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어 서구적인 사고가 글로벌한 사고로 인식되고 있다. 패션디자인을 포함한 조형예술 전반에 있어서도 서구 중심적인 사고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유행에 민감한 패션디자인 영역에서는 20세기 이후 서구적인 패션디자인이 주

류를 형성해 왔다. 이에 따라 패션디자인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디자인이 서구적인 조형시각에 의해 구성되어졌는데, 자연주의 관점에서 보면 서구적인 디자인은 서구의 자연을 모티프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동양적인 시각에서 패션디자인의 모티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자연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자연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러한 동양적인 자연물인 대나무에서 어떻게 패션디자인 모티프를 도출하느냐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주의 전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했다. 나아가 한국적인 자연물인 대나무의 자연적인 형태가 패션디자인 모티프로 작용하는 사례를 대나무의 구성요소인 죽순, 죽간, 죽근, 죽엽, 죽담별로 제시해 보았다. 조형의 태초적 발상지인 원형(原形)은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조형의 경우 원형 자체가 모티프로 이용되기보다는 예술가에 의해 재창조되면서 수많은 변형을 이루어낸다. 특히 현대의 조형예술은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결합되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티프로 그 근원을 추적하기 힘들어 지고 있다. 그러나 혼재되고 다원화된 디자인의 근원적인 모티프는 자연물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원형의 자연물을 응용하거나 이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주의 패션경향에 대해 살펴보고, 동양적인 자연물인 대나무에서 도출되는 자연주의적 디자인 모티프가 적용된 패션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자연주의에 대한 문헌고찰

1. 자연의 의미

자연의 사전적 의미는 ‘나와서 자라고 쇠약해져

사멸하며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발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양에서 자연(nature)의 어원은 생성(生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피시스(physis)를 라틴어로 번역한 나투라(natura)에서 기원하는데, 이때 나투라는 '본성'을 의미한다. 자연은 서구적 시각에서 '성장과정이나 기원, 사물들을 만들어낸 물리적 재료 즉 원재료'라는 뜻과 '사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본질, 또는 사물의 구조'를 의미한다. 예컨대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발전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동양에서 자연(自然)이라는 말은 '자(自)'와 '연(然)'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자'는 스스로를 의미하고 '연'은 사물을 형성하는 '성(成)'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양에서 자연은 도교사상에 기반하여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의 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인간 또한 자연의 순환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로 파악한 것이다. 서양과 동양의 자연관은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발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자연은 근대 이후 인간과 대치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개입이나 간섭 또는 인공물품이 아닌 것, 인공적인 요소가 가해지지 않는 것을 자연이라 통칭하게 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공물의 반대 개념인 자연 그 자체를 강조하게 된다.

2. 조형예술에 있어서의 자연주의

「국어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자연주의는 자연을 유일·절대 또는 근본원리로 보고, 정신현상까지도 포함하여 온갖 현상 및 과정을 이와 같은 자연의 소산(所産)·소위(所爲)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밀레니엄 세계 대백과사전」에서는 “기물이나 건축장식 등에 동식물의 무늬를 붙이거나 또는 기물 따위의 형태 자체를

자연물을 모방하여 만드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을 창조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자연주의의 사상은 「리트레사전」(1874)에서는 “모든 것을 제1원리로서 자연에 전가하는 설”이라고 정의한 이래 사전적인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자연주의를 「라루스대백과사전」에서는 문학과 철학 항목에 배치했고, 「로베르사전」(1967)에서는 철학과 미술의 용어로 분류했다.²⁾ 1863년의 미술전시회 평에서 자연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쥘 카스타나리(Jules Castagnary)는 “자연주의는 예술이란 인생의 모든 양상을 모든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예술의 유일한 목표는 자연을 강렬하고 철저하게 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히고 있다.³⁾ 그러나 자연주의는 자연의 외형적인 형식을 단순 모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연이 내포하는 내용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연 원형을 그대로 모방하여 옮겨 놓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⁴⁾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질서'와 '조화' 그리고 '균형'과 '비례'의 미적 요소들은 예술적 창조의 기본원리로 작용해 왔다. 이처럼 원리와 법칙 나아가 형상에 있어서 자연을 모방하는 과학이나, 자연에서 조형의 모티프를 얻는 예술은 신이 만든 섭리 속에서 창조를 하는 과정이다. 조형예술도 결국 자연과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관계 속에 존재해 왔으며 그 원형(原形)은 자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술에 있어 자연주의(naturalism)란 자연 대상을 양식화(양식화)하거나 그 관념적 표현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충실히 재현하려는 예술태도이다. 이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의 존재와 가치의 원리가 있기에 자연 대상의 미가 작품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자연의 재현에 필연적으로 자연미의 탐구와 존중이 들어있다. 여기서 자연주의라는 말은 자연(nature), 또한 자연적인 것(naturalness)과 관련된 것이다.⁶⁾ 자연주의는 이러한 성격이 강하지 않은 양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자연의 개념에 확고하게 근거를 둔 단

일하고 명백한 예술관이 아니라, 수시로 변모하면서 시대에 따라 일정한 목적과 구체적 과제를 지향하는,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현상에 초점을 두는 해석이다.⁷⁾ 따라서 자연주의에 대한 개념과 접근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조망되어 각각 다른 양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 자연주의 경향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고대에 있어 자연주의는 보이는 그대로 자연을 재현한 것이다. 예술가가 자연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아도 자연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배경화가들은 자연을 보이는 그대로 그렸고, 그것이 사물을 재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고대의 자연중심주의는 중세 들어 신(神)중심주의로 바뀌면서 퇴조했다. 자연이 예술사조에 다시 등장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였다. 이때부터 신(神)중심으로 바라보았던 중세의 개념들에서 그리스, 로마 예술의 인간적인 자연관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자연주의는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국 조형예술에 있어 고대 그리스는 자연주의의 태동이라 할 수 있고, 르네상스는 자연주의의 부흥이라 할 수 있다.⁸⁾ 이후 18세기 중반부터 고고학의 발달로 고대 문화유산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고전으로의 복귀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신고전주의’가 부상했다. 이 시기에는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에 의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제가 조형예술에 영향을 미쳐 자연이 예술 활동의 모체로 부각되어졌다.

조형예술에 있어 자연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다시 부각되어졌다. 예컨대 19세기 과학적 발견과 예술에 있어서의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자연주의를 형성하는데 근본적 요인이 되었다. 예술에서는 꾸르베로 시작된 사실주의로부터 자연을 재현하는 풍경화를 그렸던 바르비종파, 인상주의 등이 대두되었다. 마네, 모네를 중심으로 한 인

상주의자들에 따르면 미술의 유일한 법칙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 이었다.⁹⁾ 20세기 들어 자연주의는 과학적 발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상한 환경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연을 중시하는 자연주의적 에콜로지 경향이 조형예술의 중요한 테마로 부상하였다.

현대 조형예술에 있어 자연주의가 구현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대표적인 예로 유기체적 형태를 디자인과 연결시켰던 핀란드 건축가 알바알토(Alvar Alto)가 있다. 1937년 그가 디자인한 유리병은 핀란드의 피요르드 해안선에서 영감을 받아 물결치는 듯한 자연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찰스 에머스(Charles Eames)는 조개껍질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의자의 등판에서 자신이 익숙한 자연을 재현했다. 덴마크의 헨닝 코펠(Henning Koppel)의 은팔지는 인체 척추의 연결된 뼈들을 연상시킨다. 핀란드의 타피오 빌크라(Tapio Wirkkila)와 티모 사파네브(Timo Sarpanev)의 디자인은 당시의 전형적인 핀란드적 테마였던 험준한 바위 형태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고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재현하고 있다.

조형예술에 있어 자연주의는 예술가의 지역적 성향과도 관련 있다. 핀란드의 자연을 보고 핀란드적인 조형물이 탄생하고, 한국적인 자연을 보고 한국적인 조형이 탄생한다. 한민족의 문화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구성원들의 내적 성향과 본능에 따라 생성되고 성장한다. 우리가 만약 서구의 조형예술만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한국의 조형예술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¹⁰⁾ 서구의 조형예술은 그 창조의 근원을 서구의 자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조형예술의 차별성을 높이려면 한국적인 자연물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다.

3. 패션디자인에 있어서의 자연주의

패션디자인은 색채, 소재, 형태의 디자인요소로 구성됨으로써 다른 조형예술과 마찬가지로 한 시대의 예술 양식을 수용하고 표출한다. 자연물은 패션디자인의 기본적인 모티프로, 조형예술에서와 같이 자연주의 경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졌다. 패션디자인의 자연주의 경향의 시대별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에는 인간중심의 자연주의가 주를 이루었다. 고대 그리스 복식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이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인체 우선형’의 디자인이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된 중세에는 자연스러움보다는 정신적인 신성함이 부각되어졌다. 그러나 16세기 르네상스시대 이후 다시 인간중심으로 회귀하면서, 복식은 역설적으로 과장되어졌고 자연주의와는 멀어졌다. 하지만 과장된 실루엣과는 대조적으로 문양에 있어서는 고딕 시대에 성행했던 종교적 감각의 문양과 문장이 사라지고, 천연의 꽃과 잎을 그대로 묘사하여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자연적 문양이 직물, 공예품, 장신구에 사용됨으로써 직물의 문양에서 자연주의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¹¹⁾

17세기 바로크, 18세기 로코코를 거치면서 패션디자인에 있어 인공적인 기교가 유행하면서 자연주의는 다소 퇴조하였다. 19세기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시기에는 자연주의적 요소가 패션디자인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졌다. 실루엣은 자연스러운 몸매를 드러내는 인공적이지 않은 훌쭉한 수직선이었으며, 색채와 소재도 고대 그리스의 영향과 직물산업의 발달로 가공하지 않은 색채 또는 파스텔 색조의 얇은 직물을 사용하여 ‘인체 우선형’ 디자인이 부상했다. 이후 아르누보 시기에는 인상주의의 영향으로 부드럽고 연한 파스텔 계통의 부드러운 색조가 유행했고, 유기적인 곡선을 사용한 식물 문양의 직물 소재에서 자연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바디스와 소매, 치마에 자주된 식물 문양은 아르누보¹²⁾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자연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아르데코 시대에 들어서면 뿔 뺀아레(Paul Poiret)의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에서 자연주의적인 실루엣을 찾아볼 수 있다.¹³⁾

1960년대에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히피룩이 나타났고, 1970년대에는 전원적인 주제를 재현한 복고풍의 자연주의 패션이 부상했다. 포스터모더니즘 시대인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자연주의는 에콜로지(eco)와 동의어로 인식되어졌다.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부드럽고 얇은 소재를 이용하여 소프트한 입체미를 주며, 자연스러운 어깨선을 나타내는 차분한 느낌을 주는 실루엣과, 색채도 자연계의 꽃, 과일 등 생생한 생명감과 모래, 숲, 바다 등 지구색(earth color)의 복합 배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대별 자연주의 경향을 색채, 소재, 형태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색채에 있어서 자연주의는 자연에 존재하는 색채를 패션디자인에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천연염료와 같이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색채를 만들 수도 있고, 자연적인 느낌의 색상군을 이용할 수도 있다. 패션디자인에 구현된 자연적인 느낌의 색상은 대지의 색상과 같이 빛이 바래서 퇴색해 버린 듯한 느낌의 저명도·저채도의 색상 계열이다. 이는 에쿠르(ecru)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색상이나 뉴트랄 계열로 화이트, 크림 화이트, 내추럴 베이지, 스킨 베이지 등의 색상군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¹⁴⁾ 인상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와 흰색이 가미된 내추럴톤의 색상도 자연스러운 느낌의 색상군이다.¹⁵⁾ 한편 강력한 표현력을 갖는 원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염료로부터 발취한 색이며 자연주의 경향의 색으로 분류된다.¹⁶⁾ 흰색은 화학염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주 새하얀 백색이 아니고 가공하지 않은 천

연섭유에서 보여지는 미려한 흰색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로 인공을 배제하며 자연과 융합하려는 소박함이 담겨져 있는 우리 민족이 즐겨 사용하던 소색(素色)을 의미한다.¹⁷⁾

자연주의 경향의 패션디자인에 사용되는 소재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는 천연소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술의 개발로 천연섬유의 느낌을 주면서 신축성을 가미하여 인체 형태미를 자연스럽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소재를 의미한다.¹⁸⁾ 천연소재는 자연의 질감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소재이다. 예컨대, 불규칙적으로 구겨놓은 듯한 고르지 못한 표면을 지닌 소재는 양감 있고 풍부한 표면질감으로 자연주의적인 느낌을 준다. 이러한 소재는 천연염료를 사용하거나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생지 상태의 소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직물로 구성되기 이전 상태의 실을 수공으로 엮거나 동물의 뼈, 조개껍질, 야자나무 껍질을 엮어 사용하는 원시적인 소재도 자연주의 경향의 소재라 할 수 있다.¹⁹⁾

형태에 있어 자연주의는 인체미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과 패션디자인에 자연물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체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 복식에서 보여 지듯이 얇고 소프트한 소재를 통하여 복식이 인체 곡선을 자연스럽게 비추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은폐되거나 노출되도록 하여 인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형태이다. 이는 원시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나체 자체의 미를 추구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살리도록 입체적으로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다.²⁰⁾ 한편 자연물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물, 공기, 풀, 꽃, 나무, 새, 돌, 흙 등 다양한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그 형을 가져오는 것이다. 예컨대 패션디자인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자연물 중의 하나가 꽃이다. 매 시즌의 컬렉션에서 이러한 꽃의 조형물 장식과 꽃무늬가 유행에 관계없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프린트물 뿐 아니라 직접 복식에 부착하여 입체적인 조형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자연주의는 패션디자인의 색채, 소재, 형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어졌다. 그런데 조형예술이나 패션디자인에 구현된 자연주의는 예술가가 모방하는 자연의 종류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술가는 자신이 익숙한 지역의 자연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받게되므로 조형은 지역적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에스닉(ethnic)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컨대 인류는 오랜 기간 지역별로 차별화 되고 다양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 왔고,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자연주의적인 조형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졌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에 급속히 진행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적으로 구분되어지던 세계 각국이 연결되는 글로벌화(globalization) 경향이 심화되면서 시대별·지역별 특성이 혼합되어져 어디서 어떤 자연을 모티프로 창의적인 조형이 디자인되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는 다문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체제는 외부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항상 다른 문화와 접촉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문화전파현상이 발생한다. 전파는 두 사회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 만일 두 상이한 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일차적인 혹은 직접적인 접촉관계에 있는 경우 활발한 문화교류가 나타나게 된다.²¹⁾ 문화이식이란 이질문화에서 오는 새로운 생활습관의 적응이라 할 수 있고, 이질적인 문화의 사람이 가장 쉽게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복식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문화이식이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방식은 근대의 식민지화였는데, 이러한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2차 대전 이후에도 서구중심의 문화는 세계 각국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²²⁾ 그러나 문

회이식은 양 방향으로도 전개되어 서구는 서구대로 동양풍의 에스닉에 영향을 받게 되고²³⁾, 타 지역은 타 지역대로 서구 중심의 패션이 전파되어졌다. 이러한 양 방향의 문화이식이 전개되면서 서양과 동양의 에스닉 풍이 유행 경향으로 부각되어졌고²⁴⁾, 이러한 에스닉 풍은 단순히 한 지역의 에스닉 풍에서 보다 복잡한 형태의 다차원 모티프(multi-motif)²⁵⁾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서구 민속 중심(western ethnocentrism)에서 동양적인 자연물이 부각되어져 패션디자인의 영역에서도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화된 패션디자인에 있어 차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자연물에서 디자인의 모티프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적인 것이 항상 세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국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양적이면서 한국적인 자연물로 대나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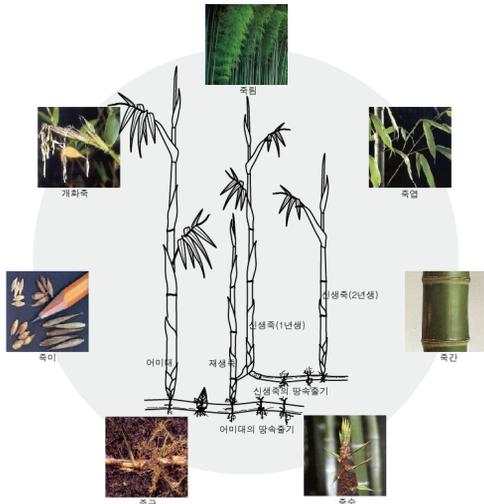
III. 디자인 모티프로서의 대나무

동양과 서양은 상이한 자연관을 지닌다. 서양의 기계론적 자연관과는 달리 동양에 있어 자연은 유기적인 성향을 지닌다. 이는 동양에서 인간의 삶은 자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형에 있어서도 조형적 완성도나 효과가 아닌 창조의 정신과 작가의 인격 완성도에 비중을 두고, 자연과 상생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인위(人爲)를 사용하되 자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나아가 인위가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연관에 따라 동양에서는 서양과 같은 극(劇)적인 감동보다는 소박(素朴)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조형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동양적인 조형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동양에 있어

전통공간의 비례는 서양처럼 수학적 비례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만든 상황의 결과이다. 동양에서 조형의 생성은 주와 객이 하나되는 과정의 산물이다.²⁶⁾

이러한 동양적인 자연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자연물은 문헌상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동물에서는 까치, 학, 기러기, 호랑이, 소, 용 등이 있고, 식물에서는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 일본의 벚꽃, 사군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모티프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동양적인 자연물 중에서 서구에서도 패션디자인의 모티프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식물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동양의 대표적인 식물을 분류하는 고사성어 중 삼우(三友), 사군자(四君子), 오우(五友) 등이 있다. 먼저 삼우는 세한삼우(歲寒三友)로도 불리우는데, 추운 겨울에도 잘 견디어 함께 해를 넘기는 세 벗이라는 뜻으로 소나무, 매화, 대나무를 이르는 말이다. 사군자는 매(梅), 란(蘭), 국(菊), 죽(竹)을 의미하고, 오우는 사군자에 소나무인 송(松)을 추가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양의 대표적인 자연물 중 식물에는 대나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양의 대표적인 자연물로 대나무를 선택하고자 한다. 대나무를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은 서구의 자연에 의해 파생된 에스닉이 주류를 이루는 패션디자인에 동양적인 자연주의 에스닉을 부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접근방식이다. <그림 1>은 이러한 대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서 보듯이 대나무는 태동해서, 자라나고, 숲을 이루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된다. 이들 중 디자인 모티프로 이용할 수 있는 요소를 본 논문에서는 죽순, 죽간, 죽근, 죽엽으로 구분하고 집합적인 형태요소로는 죽림으로 구분했다. 각각의 단계에서 다른 형태와 색채를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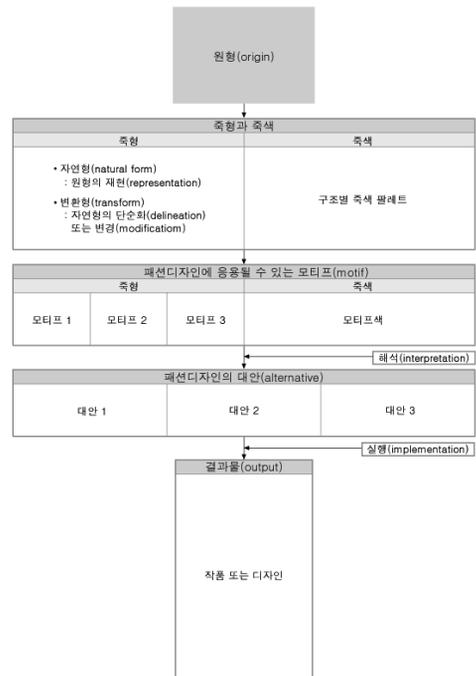
<그림 1> 대나무의 구조

IV. 대나무를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1.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본 연구는 동양적인 자연물인 대나무를 시각화하여 한국적인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조형의 방법적 틀을 만들고자 한다. 여기서는 대나무를 모티프로 이용한 패션디자인이 창조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첫 단계는 대나무 구조별 자연적인 원형(原形, origin)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나무의 형태인 죽형(竹形)을 도출하기 위해 자연형(natural form)과 변환형(transform)을 보여 주고, 구조별로 추출한 대나무 색상 팔레트를 전부 나열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디자인의 모티프(motif)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형태 차원의 모티프는 대나무의 자연형과 변환형에서 도출된 모티프를 제시하였다. 색채 차원의 모티프는 대나무 구조별 죽색(竹色) 중에서 해당 프로세스의 원형에서 도

출되는 색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대나무 형태에서 도출된 모티프 사례를 이용하여 패션디자인 대안(alternative)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형태 모티프를 복식의 실루엣으로 해석(interpretation)하는 과정으로, 3개씩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단계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패션디자인의 결과물(output)을 완성시키는 실행(implementation)과정이다. 결과물은 저자가 제작해서 발표한 8점의 실물작품을 제시했다.



<그림 2>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2. 대나무를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작품

1) 죽순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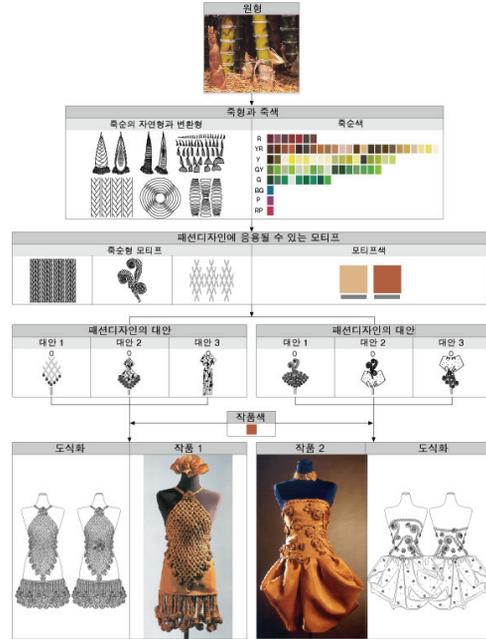
<그림 3>의 작품 1은 2002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품이고, 작품 2는 2001년 한국패션문화학회 부산 초대전 출품작품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디자인을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원형(原形)으로 죽순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기본으로 죽순의 자연

형과 변환형에서 모티프를 도출했다. 패션디자인을 위한 모티프는 조화, 대칭, 균형이 강조된 것이다. 이에서 두 종류의 복식디자인으로 전개시켜서 대안(alternative)을 각각 3개씩 제시하였고 이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하여 2개의 작품을 제작했다.

작품 1과 작품 2는 한 겹 한 겹 겹쳐진 죽순의 외형을 표현함과 동시에 죽립의 여기 저기서 빠르게 성장하는 죽순의 강한 생명력이 표현된 작품이다. 색상은 단순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단색을 선택했는데, 죽순색이 가장 넓게 분포한 YR계열의 색채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이 색은 죽순색이기도 하지만, 죽순의 모태가 되는 대지의 자연색과도 유사하다. 두 작품 모두 소재는 실크와 구슬을 이용했다. 이는 광택있는 자연죽순의 질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죽순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반영한다. 제작기법은 땅기와 십자 엮기를 이용했다. 십자 엮기는 죽공예품에서 많이 이용되는 엮기 기법으로 죽순의 겹겹이 쌓인 표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정교한 기법이다. 작품 1, 작품 2 모두 죽순을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촘촘히 연결된 이미지는 대지에서 탄생해서 성장하는 죽순 형상 자체를 디자인 모티프로 한 것으로 대나무의 생명력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두 작품의 제작기법으로 땅기와 엮기를 이용하여 죽공예품의 이미지도 함께 표현하고자 했다.

2) 죽간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작품

<그림 4>의 작품 3은 2002년 부산 국제 섬유·패션 아트 페스티벌 출품작품이고, 작품 4는 2002년 한국 패션문화 협회 정기전 출품작품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디자인을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원형(原形)으로 색이 바란 죽간사진을 제시했다. 죽간형 모티프에서 전체적인 실루엣 및 엮어진 이미지를 이용했다. 이는 사실적 표현으로 리듬이 강조되는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소재는 죽공예품에서 이용하는 가늘게 쪼갠 실제 대나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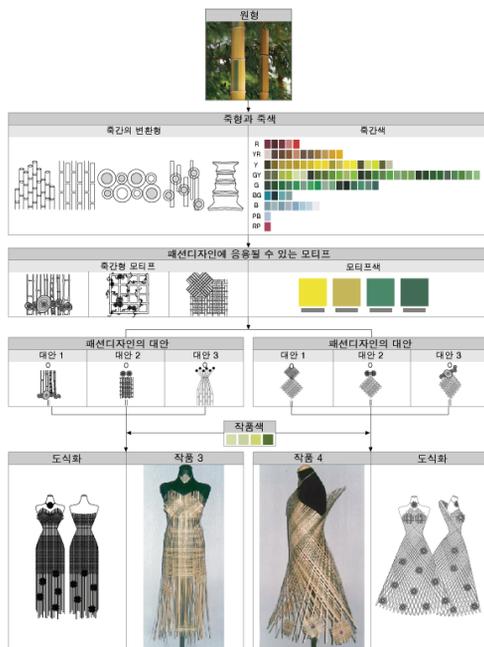


<그림 3> 죽순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사용했다. 작품에 사용된 가늘게 쪼갠 대나무는 대오리로도 불리우는데 채상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다. 죽간의 바깥쪽은 다소 푸른 색상을 띄고, 안쪽은 옅은 아이보리 색을 띄고 있다. 색상이 미세하게 차이는 쪼갠 죽간을 엮어서 수공예적인 느낌이 나도록 했다. 두 작품 모두 죽공예품의 엮기 기법 중 십자 엮기를 사용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엮기 기법으로 대바구니류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죽간 대오리는 잘 부러지므로 곡선적인 바디에서 직접 엮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에는 엮기 기법의 기본이 되는 십자 엮기가 가장 적합했다.

작품 3은 바디 선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상의와 하의부분을 직선적인 형태로 만들어 죽간의 곧은 이미지를 표현했다. 상의 부분은 전형적인 십자 엮기로 반복적인 균형미를 나타냈고, 스커트 부분은 대오리를 그냥 늘어 놓아 자연적인 이미지를 살렸다. 이는 곧으면서도 부드러운 죽간의 이

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작품 4는 바구니를 엮듯이 곡선적인 형태로 곧지만 잘 휘는 유연성을 갖춘 죽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4의 경우는 상의는 촘촘하게 엮고 스커트 부분은 엉성하게 엮었다. 전반적으로 대오리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곡선형이 나타나도록 했다. 작품 3과 작품 4는 수공예적 기법으로 정교한 제작을 하여 정돈된 대나무 느낌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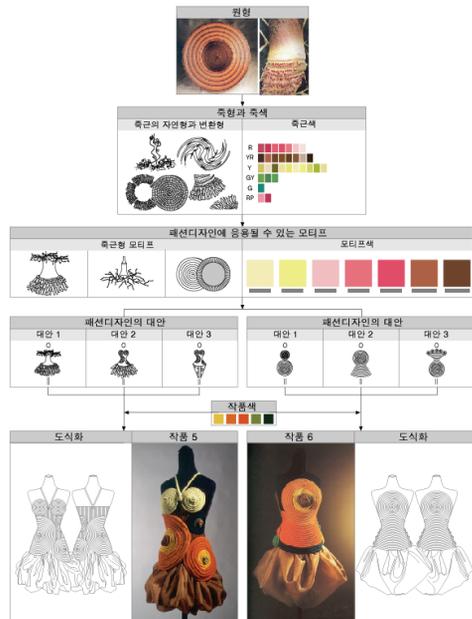


<그림 4> 죽간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3) 죽근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작품

<그림 5>의 작품 5는 2000년 광주비엔날레 사이버 갤러리 출품작품이고, 작품 6은 2000년 한국복식학회 정기전 출품작품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디자인을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원형(原形)으로 온대의 죽근사진을 제시했다. 패션디자인을 위한 모티프는 구상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동시에 사용했다. 죽근은 대나무의 생명력을 상징하고 죽간과는 달리 속이 비어있지 않다. 따라서 죽근 횡단면의 원을 디자인 모티프로 이용했는데, 이는

대칭적인 디자인 요소가 강조된 것이다. 작품 5와 작품 6의 스커트 밑 부분은 죽근의 이미지를 실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로 연출했다. 작품 5의 상의 부분은 횡단면을 여러 겹 겹친 형태를 표현하여, 둥근 원을 그리듯 원만하면서 상부상조하는 민중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작품 6의 상의 부분은 횡단면 하나를 중심으로 모이는 듯 한 이미지로 민중을 결합시키는 구심력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5의 색상은 상의는 죽간색을 이용했고, 스커트는 대지의 자연색과 유사한 죽근색을 선택했다. 소재는 스티로폴 루프에 모사를 감았다. 소재 자체는 단순하지만, 이를 섬세하게 코일링하는 기법으로 수공예적인 정교함과 우아함을 함께 표현했다. 모사를 이용한 것은 고고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고, 루프를 이용한 것은 스티로폴의 유연함을 이용하여 실루엣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대나무가 직선적이지만 유연함을 지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작품은 전체적으로 곡선적이고 부드러



<그림 5> 죽근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운 형상을 강조하여 화합, 평화, 안녕을 기원하는 민중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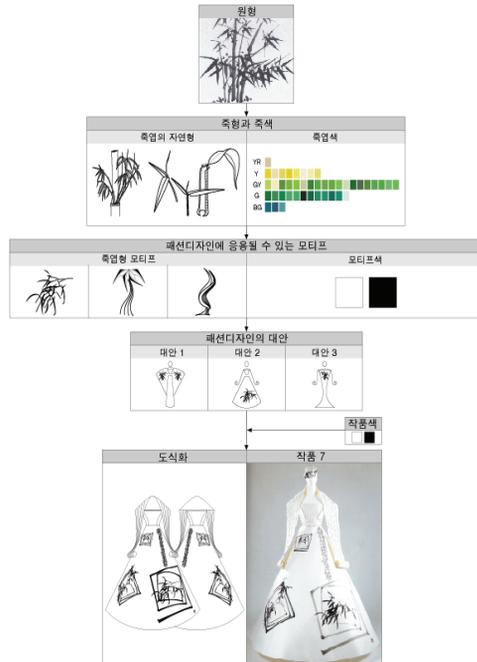
4) 죽엽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작품

<그림 6>의 작품 7은 1999년 한국패션문화협회 초대전인 서예와 의상전 출품작품이다. 패션디자인의 원형은 죽엽을 수목화로 표현한 것이다. 모티프는 단순화된 형을 점차 추상적으로 바꾼 모티프이다. 작품 7은 죽엽을 가장 사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한지에 죽엽의 느낌만 나타나는 유강 유수중 선생의 수목화작품을 삽입했다. 작품 7에서 표현된 죽엽은 네모난 죽간에 갇힌 듯한 형상이다. 이는 잘 짜여진 틀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충효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고, 한지를 소재로 하여 동양적인 신비함을 나타내고 있다. 상의의 딱딱한 질감과 직선적인 이미지는 곧은 대나무의 상징성과도 연결된다. 상의의 제작기법은 촘촘하게 종이를 땀은 것이다. 팔을 연상시키는 부분은 죽세공품 그물형 엮기를 변형한 땀기 기법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방법이다. 전반적으로 흰색의 한지와 수목화 자체는 무채색의 신성함을 내포하는데, 이는 죽엽의 신성한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웨딩드레스를 연상시키는 실루엣과 한지의 질감은 동양적인 한지의 이미지에 서구적인 이미지를 접목시킨 것이다.

5) 죽림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작품

<그림 7>의 작품 8은 1998년 한국복식학회 정기전 출품작품이다. 원형은 밝게 빛이 드리워진 죽림 사진이다. 죽림의 자연형과 변환형에서 곧게 연결된 모티프를 도출했다. 이는 죽간이 반복되는 죽림의 기본 형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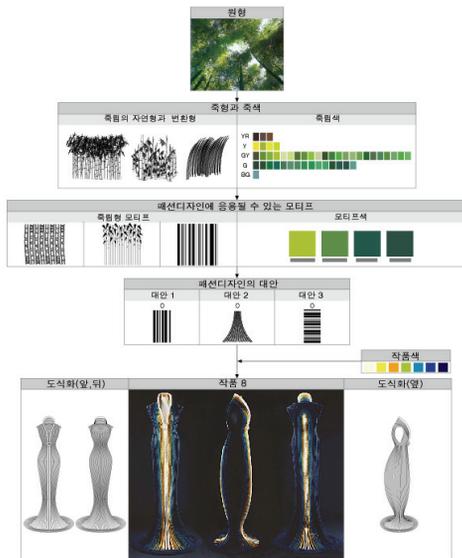
작품 8은 죽림을 패션디자인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한 그루 대나무보다 군집을 이룬 죽림은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옆 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대나무, 굵은 대와 가는 대, 색이 바랜



<그림 6> 죽엽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대와 신생대의 다양한 형상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에 따라 작품 8에서는 다양한 굵기의 루프로 다양한 굵기의 대나무를 표현했다. 죽색은 한 그루 일 때와 죽림을 이룰 때 다르게 나타난다. 작품 8은 죽림에 밝은 빛이 투시되었을 때의 명암의 차이로 발생하는 색상변화를 표현했다. 이렇듯 색상구성, 전체적인 실루엣, 루프 굵기, 보는 각도에 따른 명암대비 등의 요소로 한 벌의 패션디자인으로 죽림을 표현한 것이다. 죽림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 죽림색에는 나타나지 않는 밝은 계열의 색을 대비시켰다. 이를 위해 면셀의 40색상환에서 R에서 B까지의 색상 중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사용했다. 한편 빛이 반사되는 죽림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명·채도가 높은 아이보리색을 사용했다. 이렇듯 죽림의 자연색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빛이 투영된 죽림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은 죽림이 지니는 신성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상상

의 세계를 상징하는 죽림의 상징적 이미지는 자연 죽림색 보다는 빛이 투영되어 대비되는 색상에서 보다 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재는 루프에 면사를 감아서 사용했다. 죽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물성 소재인 모사보다는 식물성 소재인 면사를 이용하여 순수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림 7> 죽림을 모티프로 한 패션디자인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연주의 패션경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동양적인 자연물인 대나무를 패션디자인의 모티프로 이용한 사례를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제시한 것이다. 예컨대, 원형(原形)에서 출발하여 구조별 자연형과 변환형, 죽색 팔레트를 제시하고, 이에서 도출된 죽형 모티프와 원형의 모티프 색을 이용하여 패션디자인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죽형을 패션디자인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형상으로 실루엣으로 해석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세 개씩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하여 결과물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8개의 작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접근은 동양적인 자연물을 시각화하여 한국적인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조형의 방법적 틀을 제시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진행된 본 연구는 동양적이면서 한국적인 자연물을 패션디자인의 모티프로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의 세계는 한편에서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렇듯 양 방향의 힘이 함께 공존하면서 세계적인 차원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특히 디자인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환으로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패션디자인분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본 연구는 이 시대의 디자인 패러다임의 주요 흐름인 자연주의 경향을 이용했다.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복식디자인을 위해서는 자연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양적인 자연물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여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를 선택했던 것이다. 대나무는 세계 속에서 동양의 대표적 지역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나무의 생태적 특성 및 이미지를 규명하고, 형(形)과 색(色)이라는 원초적인 조형요소를 적용하여 자연적 이미지에서 단순화하고 추상화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연구자의 패션디자인에 실험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 범세계적인 보편성 위에서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발견하였다.

참고문헌

- 1) 본 연구의 전체내용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여러부

- 분을 인용하여 전반적인 논리흐름에 맞게 재작성한 것이다. 강죽형 (2003). 죽형과 죽색을 모티프로 한 복식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78.
- 2) Cogny, P. (1970). 자연주의, 임형문 옮김 (1985). 서울: 탐구당, pp.1-186.
 - 3) Skrine, P. N. & Frust, L. R. (1970). 자연주의, 천승걸 옮김 (1986).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1-150.
 - 4) 권원순 (1982). 추상과 감정입입,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pp.1-168.
 - 5) 양식이란 예술 분야에 걸친 각 작가·장르·시대 등의 고유 특징적인 표현구조 또는 방법으로 외형적인 고찰뿐만 아니라 아울러 내적인·정신적인 측면까지 고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예술작품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사한 특성을 밝히거나 다른 특성과 구별 지워주는 분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6) Skrine, P. N. & Frust, L. R. 앞의 책, p.73.
 - 7) Houser, A. (1958).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백낙청 옮김 (1993). 서울: 창작과 비평사, pp.1-340.
 - 8) 월간미술 (2007).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pp.1-598.
 - 9) 하지수 (1993).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01.
 - 10) 김영기 (1991).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pp.1-404.
 - 11) 정홍숙 (1999).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pp.55-161.
 - 12) 아르누보 시대에는 재봉틀의 발명되면서 고급 자수 기법이 많이 이용되면서 자연주의 표현 방법에 변형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 13) 정홍숙. 앞의 책, p.340.
 - 14) 전소영 (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0.
 - 15) 이경아, 전해경 (1998).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37(-), p.262.
 - 16) 강희경 (1998).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복식, 38(-), pp.213-229.
 - 17) 조규화 (2005).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p.1-382.
 - 18) 이경아, 전해경. 앞의 논문, p.262.
 - 19) 한소원 (1995).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3.
 - 20) 이경아, 전해경. 앞의 논문, pp.261-262.
 - 21) 서정희, 유태순 (1998).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복식, 41(-), pp.139-140.
 - 22) 위의 논문, p.140.
 - 23) 서구 입장에서 이러한 타 지역의 에스닉 풍은 이국적(exotic)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져서, Arabian look, African look, Indian look, Chinese look, Mongolian look 등의 패션테마로 이용되었다.
 - 24) 이국 취향은 인간 정신의 향수이며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문화의 애착 내지는 자연으로의 복귀 심리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고도의 과학 문명에 의해 주도되는 서양 문명으로 채워지지 않은 정신적 풍요를 비서구의 전통 사상과 문화에서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25)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매스미디어,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교류,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다양한 경험을 단기간에 접하게 되어, 디자인에 필요한 모티프를 동시다발적으로 혼합하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 26) 권영걸 (2001). 한중일 전통공간의 조형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07.

A Study on Naturalism and Fashion Designs using Bamboo Motifs

Kang, Juk Hy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u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naturalism trend in fine art and fashion design, and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to extract fashion designs using bamboo motifs. As a result of analyzing naturalism embodied in formative arts, artistic works were historically found to reflect the natural environment familiar to the artists. This clearly shows that a study of oriental natural objects is necessary to enhance the differentiation of Eastern formative arts from its Western counterparts. Many noticeable designs for fashion have started from the western perspective, or so-called naturalism, which stems from a motif based on natural elements in the West. The research topic of this study was set as bamboo, for it is an Eastern natural object that can express Eastern taste and fashion designs in a Korean style. Eight designs were completed in this study based on examinations of fashion design using bamboo forms and colors. The designs suggest a method of formative arts that can establish a cultural identity of Korea by visualizing a natural object of the East. The results of this stud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application of bamboo images to fashion design can not only be an effective tool to establish a cultural identity of Korea and the East, but also to embrace universal characteristics.

Key words: naturalism, bamboo, motif, fashion, design process